

일.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은혜 (수 2:1, 22-24):

❖ 두번째 기회.

-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, 백성들은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. 40 년 후, 새로운 정탐꾼들이 파견되었고, 결과는 달랐습니다:
 - (1) 정탐꾼을 보냄: 공개적으로 (12 명) / 비밀리에 (2 명)
 - (2) 정탐꾼들의 역할수행: 40 일간 정탐함/3 일동안 숨어 지냄
 - (3) 정탐꾼들의 보고: 백성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음/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줌
- 이스라엘의) 새로운 세대는 발람의 유혹에 빠져 비참하게 실패했지만,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(민 25:1-3, 31:16; 수 2:1).
- 이번에는 포도송이도, 그 땅의 열매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. 오직 라합의 증언을 통한 믿음의 이야기만 가져왔고,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용기가 생겼습니다.

이. 라합을 위한 은혜 (수 2:2-21):

❖ 겨자씨만한 믿음.

- 라합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(수 2:9-11)? 특이한 점은 라합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이나 그 외의 기적들을 말할 때 마치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,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선택했습니다 (수 2:12-13).
-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면, 왜 정탐꾼들을 돕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까요? 라합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녀는 정탐꾼들을 돕고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녀는 그 후에 (하나님을 아는)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.
-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린 라합과 그녀의 결단력 그리고 자신의 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점을 (약 2:25) 칭찬합니다).
- 여리고 성 주민들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더라면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.

❖ 라합까지 아우른 언약.

-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거절할 수 없는 논리를 펼쳤습니다. "내가 당신들을 잘 봐드렸으니...내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를 살려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" (수 2:12-13).
- 라합이 (정탐꾼들에게) 자신과 가족들을 돌봐 달라고 했을 때,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(ἱσχυρία-헤세드)을 베푸신 것처럼 자신을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(신 7:12).
-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이 애굽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(빨간 천을) 문 밖에 달아 달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라합은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
 - (1)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:
 - 일.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야 함 (출. 12:7)
 - 이. 집안에 머물러야 함 (출. 12:13)
 - (2) 여리고 성의 라합;
 - 일. 붉은 천을 창문에 달아 길게 늘어뜨림 (수 2:18)
 - 이. 그녀의 집을 떠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함 (수 2:19)

삼.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은혜 (수 9):

❖ 속임수를 쓴 (기브온) 대표단.

-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반면, 기브온 사람들은 (이스라엘을) 속이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(창 3:1).
-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렸습니다.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인가, 아니면 맹세를 지킬 것인가 (수 9:18).
- 더 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실패했습니다 (수 9:14).

❖ 축복과 저주.

- 기브온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(신 7:1-2). 그들에게 한 맹세를 어기는 것 또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(수 9:19; 시 15:4 하). 그들은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?
-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주었지만, 그들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(수 9:20-23). 그 저주는 대대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.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,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(느 7:6, 25).
- 더욱이,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나르고 나무를 베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 그들의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되었습니다. "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" (겔 33:11).